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 헌금 전 이야기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학생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지혜의 영을 회복하소서”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연합감리교 학생주일은 교단 전체가 함께 지키는 6개의 특별선교주일의 하나로 청년들의 삶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재정적 및 영적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팬더믹에서 회복 중인 세상에서 교단의 분열을 경험하면서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희망의 원천이 되어주세요.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학업과 직업 가운데 웨슬리 전통의 가치와 지혜를 전할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소망의 통로에 투자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교회가 젊은이들과 그들의 실력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교회의 투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다시 교회에 투자할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여 교회의 미래를 책임

질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이시 머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 헌금 전 이야기

예를 들어, 제이시 머든(Jaci Murden)은 고등 교육 과정을 항상 그녀 자신과 미래를 향상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녀는 대학 생활 내내 여러 연합감리교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장학금들은 전문 직업의 토대가 된 제 기독교 고등 교육 과정을 후원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교회의 투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다시 교회에 투자할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후원하는 일은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학생 주일 예물은 수년에 걸쳐 정의 추구, 치유, 공홀이라는 가치를 품은 젊은 지도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을 후원해 왔습니다.

관대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체크 메모

난에 “학생주일(UM Students Day)”을 적어 특별헌금 봉투에 넣어 헌금해 주시거나, [UMC.org/SSGive](http://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 위에 복 내리시고 몇 곱절이 되게 하사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꿈을 좇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정의와 평등을 위해 일하며 공동선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연합감리교회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